

당정 지지율 추락... 한동훈 “尹,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참모진 전면적 개편·쇄신 김건희 여사 즉시 대외활동 중단해야”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22.4% 기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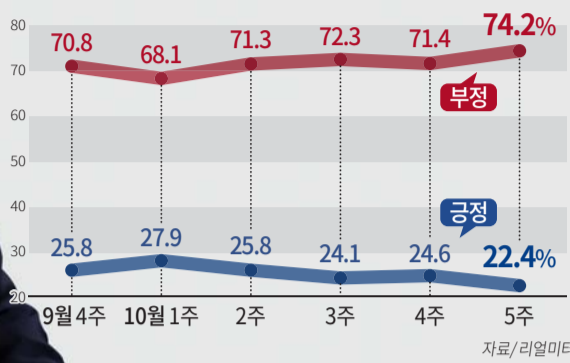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뭐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쇠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10월 28일~1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6명 조사
응답률 3.0%(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무선(97%)·유선(3%)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쇠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쇠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

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니는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담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285@metroseoul.co.kr

민주당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 삼을 것”

의원총회 열고 정국 대응 전략 논의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예정 1~2차 비상행동 통해 수위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지는 취지”라며 “14일까지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룸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회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

AI 산업현장 찾은 李... 민생·경제 행보

SK AI 서밋 참석... 최태원 회장 차담 민주당 ‘글로벌 AI 기업 정책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 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첵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첵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강력한 유감”

>> 1면 ‘내년 예산안 677조...’서 계속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급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요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하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